

매일묵상일기

가정예배

매일묵상일기 · 가정예배 자료

“어둠을 밝히는 한 아기의 탄생”

2025년 12월 23일(화)

- 찬송 (112) 다함께
- 기도 가족 중에서
- 성경 (이사야 9:1~7) 다함께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사9:6)

- 묵상자료 인도자

갈릴리는 팔레스타인의 가장 북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땅은 예로부터 이방인의 집단 거주지였고, 앗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북방 민족이 침공해 올 때, 가장 먼저 유린당하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이방민족의 거듭되는 침략으로 큰 고통을 당한 그래서 갈릴리는 유대 사람들에게조차 천대를 받는 땅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둠과 절망이 가득한 땅에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흑암의 땅에 사는 백성에게 큰 빛을 약속하십니다.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던 유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일하게 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예언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고난과 역압의 명예를 꺾고 참된 자유를 주시는 위대한 구원 약속입니다. 그날에 추수하는 자의 환희처럼 기쁨이 넘칠 것이며, 전쟁과 고통의 흔적은 모두 불에 타 없어질 것입니다. 이 구원의 빛은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통해 성취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사60:1)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힘과 권력이 아닌, 연약한 한 아기의 탄생으로 시작됩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는데 이 아기는 육신을 입고 태어나지만 신적 권능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입니다. 이는 이 아이가 하나님께 통치권을 위임받은 대리자, 즉 메시아이심을 설명하는 수식어입니다. 그는 다윗의 왕위를 이어 정의와 공의로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메시아의 통치권과 능력의 원천이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히라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기대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 참된 구원과 통치의 시작입니다. “보라 처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라는 예언은 예수님의 아기로 나심으로 성취 되었습니다. 성도는 성탄을 맞이하며 한 아기로 오신 평강의 왕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절망의 땅을 향해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실 한 아기에게 불리는 이름들은 무엇인가요?

- 기도 인도자

하나님!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고통받는 인생을 위해 오신 구원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전능자요 평강의 왕이신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서 살게 하옵소서.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다함께